

농촌선교를 활성화시키려면

한 경 호(목사, 본지 편집위원장)

한국의 농촌교회는 그 숫자에 있어서 약 15,000곳을 헤아린다고 한다. 예장(통합)만 해도 2,800여 곳이니 전(全)교단 농촌교회를 다 합치면 그리 될 것이다. 농촌의 마을마다 이제는 교회 없는 마을이 거의 없다. 웬만한 리(里)단위에는 교회가 다 있는 것이다. 교회가 없어서 선교를 못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복음 화율(10% 이하)은 나라 전체 복음화율(약2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터이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 만들어 놓으면 이농(離農)해서 떠나버리고,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전도하고 양육해야할 새 세대들은 올라오지 않고 있으며, 인적, 물적 자원이 빈곤하니 목회자가 비전과 의욕을 갖고 선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기가 힘든 형편이다. 게다가 현재 농촌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나이든 세대들은 대체로 보수적이고 완고한 편이어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나올 사람은 거의 다 나온 형편인 곳도 많이 있다. 새삼스럽게 무슨 전도를 해도 잘 먹히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농촌교회들(약 80%)이 미자립 상태여서 외부의 후원에 의지하지 않고는 교회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선교 현장은

전반적으로 봐서 선교열이 식어있고 침체되어 있는 형편이다.

오늘의 이 침체되고 약해진 농촌선교 현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선교적 방향과 과제가 올바른고 바람직한 것인가?

이제 농촌선교의 비전은 개교회 내부적, 교단 내부적, 제도권 내부적인 시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만의 변화가 아닌 인류 문명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농촌선교는 이 문명전환과 문화적 진보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농촌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현장이 아닌, 공업중심의 도시문명이 부딪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주는 대안적 삶의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명'과 '공동체'라는 가치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호의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농촌교회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해 가는 지역사회 생명공동체로써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생명선교를 중심에 놓고 미래를 보면 다양하고 새로운 목회적 과제들이 주어질 것이다. 도시교회의 지원에 의지하여 의존적이고 현실 안주적인 목회를 하는 현장이 있으면 이제는 도시교회를 이끌어 가는 선교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협동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 같은 지역에 있는(면 단위 혹은 군 단위) 교회들이 교파를 넘어서서 생명선교라는 공동의 과제를 놓고 자리를 같이 하며 연대해야 한다. 생명의 문제는 모두가 합심해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교회간의 협동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小異) 크게 같음(大同)을 보아야 한다.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파는 둘째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과제를 함께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교회연합운동도 활성화될 것이다. 교회연합운동은 밑바닥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바람직한 것이다. 지역별 목회자협의회나 교회협의회를 결성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갖게되면 개교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농촌선교에 소명을 가진 소달리티들(sodalities)이 출현해야 한다. 과거의 선교역사를 살펴보면 제도화된 교회들(modalities)이 경직되고 그 선교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소명있는 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각종 선교회(sodalities)들이 커다란 역할들을 담당했었다. 오늘 농촌선교 현장은 모달리티만 있고 소달리티는 보이지 않는다. 지나치게 모달리티 중심이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선교적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소화하고 확장하면서 선교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데는 기존의 제도화되고 경직된 모달리티보다 소달리티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소달리티들이 자기 영역을 확보하면서 지역의 기존 교회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으면 선교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달리티는 권역별(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로 시작하여 도(道)단위로 넓혀가면 될 것이다. 이 소달리티의 건설에는 소명있는 농촌목회자 및 평신도들과 그들의 뜻과 활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도시교회의 농촌선교정책이 교회별로 새롭고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도시 교회들이 이렇다할 농촌선교정책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일정액의 후원금을 많은 농촌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시교회가 달라져야 한다. 농촌선교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구조(준비 기구)를 교회 내에 만들어야 한다. 이 기구에는 실무적인 역량을 갖춘 교회 내부 인력과 함께 농촌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농촌 목회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지나치게 소모적인 현재의 상태를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교회 중심인 현재의 교회 체제하에서는 개교회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할 것이다.